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제주도 해양관광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Jeju Island Marine Tourism Contents Using Island History and Plurality

이 웅 규* · 정 민 의**

Lee, Woong-Kyu · Jung, Min-Eu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Jeju Island as an attractive marine tourism city. For this purpose, we will develop the contents of marine tourism using the historical and plural nature of Jeju Island. In order to positively examine these method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secondary research articles such as research papers, periodicals, government documents and newspaper articles published in and outside the country.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of marine tourism contents is defined as cultural tourism products that create economic value by incorporating cultural elements originating from creativity and imagination. Therefore, we would like to develop Jeju Island's marine tourism contents utilizing the history and pluralism of the island. The policy was to expand the facilities, expertise, and support for high value-added cultural products and cultural industries in the fields of film, animation, music, video, game, multimedia, character, cartoon and digital contents.

They also discussed that the cultural imagination inherent in it should be exercised as a whole. Especially, Jeju Island's creativity and imagination are needed for the prototype of marine culture contents. If we emphasize the historical and pluralism of Jeju Island, it will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identity and public image. It will also be a marine tourism content that creates economic value. This study pointed out that Jeju Island marine tourism contents, which are represented by history and plurality, originated from the exploration of marine culture content prototypes. First, we must develop a culture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조교수 : (Dept. of Tourism Management, Baekseok University)

** 백석대학교 관광학부 관광경영전공 조교수 : (Dept. of Tourism Management, Baekseo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Min-Eue Jung, mineujung@hanmail.net, (Tel) +82-41-550-2823, (Fax) +82-41-550-2824

prototype showing the history and pluralism of the exchange of people, culture, and materials.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ranscontinental territoriality by discovering cultural prototypes showing internationality. Thi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ity and a space filled with Korean history through the accumulation of multi-layered cultural circles. Especially, if Jeju Island becomes a sea port city, it will become a maritime tourism city filled with the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vision of the sea port city.

In addition, 'Nautical point of Eurasia maritime city network in the 21st century, Jeju' rather than 'Maritime advance base of the 21st century marine era, Jeju' will come to be a future-oriented vision reflecting historical and pluralism. It is important to find a cultural content prototype that reveals the history, sexuality, internationality, and cultural hybridity of an exchange city Jeju. If imagination is added to this, it will become Jeju Island with vitality, and it will become a marine tourism content that creates economic value.

Key Words(핵심용어) : Jeju Island(제주도), island identity(섬 정체성), maritime tourism city(해양관광도시), historical and pluralism(역사성과 복수성), marine tourism contents(해양관광콘텐츠), maritime city(해항도시), cultural imagination(문화적 상상력), maritime advance base(해양전진기지), excavation of cultural circle(문화원형복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제주도가 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매력 있는 해양관광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한다.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양한 연구논문과 정기간행물, 정부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관광콘텐츠란 본래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상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래서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제주도의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비디오물, 게임물, 멀티미디어콘텐츠, 캐릭터, 만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 각 분야의 시설확충과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문화산업의 해외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상상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해야 한다고 논의했다. 특히, 제주도의 해양문화 콘텐츠 원형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가미되면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정체성과 공적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관광콘텐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으로 수렴되는 해양관광콘텐츠는 제주도의 해양문화콘텐츠 원형 발굴에서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문헌고찰을 통해 세 가지 범주에서 제시하였다. 첫

제 사람, 문화, 물자 교류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보여주는 문화원형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제성을 보여 주는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초국가적 영역성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다층적인 문화가 누적된 문화원형 발굴을 통해 한국현대사의 질곡의 현장이 가득한 시·공간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를 해항도시로 자리매김 한다면, 해항도시가 가진 역사적, 철학적 비전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역동성을 담으며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에 어울릴 것이다. 또한 '21세기 해양의 시대의 해양전진기지, 제주'보다는 '21세기 유라시아 해항도시 네트워크의 결절점, 제주'가 역사성과 복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해항도시 제주가 가진 교류의 역사성, 복수성, 국제성, 문화의 집중성을 드러내는 문화콘텐츠 원형은 여기에 상상력이 가미될 때 생명력을 가지며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관광콘텐츠가 될 것이다.

향후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해양관광콘텐츠 개발방안은 반드시 정치적 요구에 따라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섬 성(性)을 무시한 정책개발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제주섬 정책은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 간 경계도 없고 국가 간 물리적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해양과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민들과 해양문화콘텐츠의 원형복원을 고려한 육지와 차별화된 해양관광콘텐츠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미래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해야 한다.

I. 서론

세계적으로 섬 건축과 섬 자원의 활용이 큰 관심과 정책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섬 전체를 단독으로 즐길 수 있어 '프라이빗 아일랜드'로 불리는 섬 리조트 등의 유행(강철희, 2017), 섬 체험을 다룬 국내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어촌편3(연출 나영석)', '섬총사(연출 박상혁)'(박홍식·장은경, 2017), 국내 섬 관광 활성화 정책(김향자, 2013; 노영희, 2008) 등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라이빗 아일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카리브해 네커 아일랜드는 영국 버진그룹의 창립자 리처드 브랜슨이 1978년에 18만달러에 손에 넣었는데, 최대 34명의 게스트를 위해 60여 명의 스태프가 서비스하는 네커 아일랜드의 빌라형 리조트의 하룻밤 숙박료가 8만달러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각국의 명사와 셀럽(Celeb)들이 앞다퉈 아지트로 삼은 이유 때문이다. 섬의 고립성 덕분에 가능한 프라이버시 보장과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초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철희, 2017).

인구 3,000여 명의 버려진 섬, 일본 나오시마(直島)는 건축과 예술을 심어 기적을 일궈내면서 불과 10여 년 만에 한 해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급부상시켰다. 일본 최대 출판교육기업 베네세그룹과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의기투합해 만든 예술의 섬은 유유자적의 공간인

섬의 복수성(plurality)을 활용하여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거장들의 작품을 담음으로써 성공을 이룬 것이다(김선화·백경진, 2010; 윤지영·변철, 2014). 섬의 복수성에 대한 통찰력(insight)이 낳은 섬 관광의 대표적 명소이다.

또한, 도쿄의 안정된 대기업 일자리를 정리하고 시마네현의 작은 섬 아마를 벗긴 도전의 터전으로 삼은 두 일본 젊은이(아베 히로시와 노부오카 료스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고향화, 인구 유출, 재정파탄의 위기에 놓였던 아마 섬으로 들어가 섬 학교를 세웠다. 논농사와 낚시 등 섬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체험에 강연이벤트 콘텐츠를 더해 섬 전체를 인생 리더십의 학교로 조성한 그들에게 섬은 여가와 휴식의 장소를 넘어 새로운 일본의 희망을 세우는 공간으로 복원하여 섬의 복수성을 극대화한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이다(강철희, 2017).

한국에는 3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이 있다. 섬의 공간과 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는 아직 연구와 개발의 역사가 일천하지만, 위와 같은 섬의 복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섬 테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임왕규, 2003). 섬의 고립성은 우리가 섬을 외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그 고립성 때문에 기본적인 기반시설과 접근성 문제로 인한 친환경적인 관광공간을 보존·보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광객에게 오염되지 않은 관광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복수성에서부터 특정 섬 환경의 특성에 맞춘 기술과 디자인, 에너지와 식수 등으로 다른 섬과의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풀어냄으로써 그 자체로 섬을 찾게 만드는 관광스토리텔링이 되고 해양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섬의 복수성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섬 관광’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되고 있다(곽수경, 2016). 또한 무인도가 아니라면 오랜 동안 섬 주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온 섬의 역사는 기획이 필요 없는 ‘섬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자 ‘해양관광콘텐츠의 보고(寶庫)’라는 점이다(김성후·오성수, 2012; 김준, 2006). 역사적으로 섬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최근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하는 오늘날의 제주도 관광의 현실에서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 될 수 있다(이승록, 2016).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되어 온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의 해양관광콘텐츠화의 가능성, 그것이 본 연구의 주된 동기이자 목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의 흥미로운 소재로 활용할 섬이 독도, 울릉도, 거제도, 강화도, 백령도 등 무궁무진하지만 그 중에서 제주도의 역사만큼 드라마틱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섬도 드라마틱하지만 특히 제주도의 역사가 대표적인 이유는 제주도가 독자적인 건국신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 오랜 기간 탐라라 불린 외국이었다는 점이다. 탐라의 지배자는 백제, 신라, 고려 등에 사신을 보내거나 직접 찾아와 통교할 정도였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선덕여왕 때 신라를 침범하는 구한(九韓)을 막기 위해 황룡사 9층 목탑을 세웠다는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 목탑의 제4층이 탐라를 의미하는 탁라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로부터 탐라가 신라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노관범, 2017).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가 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매력 있는 해양관광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한다.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간된 다양한 연구논문과 정기간행물, 정부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II. 섬의 역사성(歷史性)과 복수성(複數性)의 고찰

1.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섬을 지칭하는 ‘island’는 물을 뜻하는 ‘is’와 육지를 뜻하는 ‘land’가 결합된 합성어로서 ‘물로 둘러싸인 육지’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듯이, 섬은 해양성(물)과 육지성(땅)을 포괄하는 복수성을 지닌다. 섬은 때론 ‘소통의 징검다리’로, 때론 ‘고립의 표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인식에서도 복수성을 내포한다. 섬에 대한 인식의 복수성은 곧 바다에 대한 인식과 연동되어 나타난다(곽수경, 2016).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활동이 왕성했던 고려 이전의 ‘해양의 시대’에는 섬이 소통의 징검다리로 기능하다고 인식되었던 반면, 해양활동이 금지되었던 조선의 ‘해금(海禁)의 시대’에는 피안(彼岸)의 세계에 동떨어져 있는 고립의 표상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섬 인식의 복수성에는 그 자체에 시대성과 역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통의 징검다리로서의 섬

제주도 곳곳에 나타나는 고분과 성곽, 유물, 그리고 신화와 전설들은 제주도가 동아시아 해상 교역의 중요 거점포구로 기능했던 것을, 그리고 서남해역 여러 섬들과의 해양소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주도가 일본과의 해양소통의 징검다리로 본격적으로 기능하고 인식된 것은 삼국시대(백제)~통일신라~고려시대~조선시대였다. 또한 육지와와의 다양한 교역을 주도했던 것이나 국제해양도시의 위상을 보여주는 유적들과 신화와 전설 등이 풍성하게 남아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허남춘, 2016). 제주도의 유적들은 당시에 해상항로뿐 아니라 남해를 횡단(橫斷) 혹은 사단(斜斷)하는 항로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제주도가 일본과 동아시아, 그리고 육지와와의 해양소통의 징검다리로 적극 활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제 제주도는 소통의 징검다리를 넘어서서 국가 해양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강봉룡, 2011a; 2014).

2) 고립의 표상으로서의 섬

1273년 제주도가 여몽연합군에 의해 함락당한 후에 삼별초의 일부 세력이 남쪽 바닷길로 760여km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로 옮겨갔으리라는 견해와 삼별초에 동조했던 서남해역의 도서 해양세력이 몽골과 고려에 계속 저항했다는 견해가 근래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려와 몽골이 저항하는 도서해양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섬에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空島)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고려 말에 이러한 공도(空島)의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면, 이는 그간 해양소통의 징검다리로서, 그리고 국가 해양력의 근간으로서 기능하던 섬이 무력화되기 시작하는 일대 전환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왜구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것 역시, 공도(空島)로 인해 섬의 자위력이 상실되고 해양력이 붕괴된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고려왕조의 몰락은 해양력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것인데, 그 결과로 탄생한 조선은 의외로 해양력의 재건에 나서지 않고 해양활동을 금지하는 해금정책을 채택하고 공도(空島)의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중국 대륙의 신생왕조 명(明)이 내건 해금정책을 조선이 추수한 것이다(양진건, 2011).

명이 해금정책을 취하고 조선이 이를 추수하게 된 사정과 내막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선의 해금정책은 강력하게 실행에 옮겨졌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장기 지속되었다. 더욱 강화된 조선의 공도(空島) 조치는 왜구의 침탈로부터 섬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표방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해금정책을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국가의 문호인 해양을 폐쇄한 조선의 해금은 곧 문호를 굳건히 걸어 잠근 쇄국(鎖國)과 다름없었다. 그래서 조선의 섬인 제주도는 더 이상 바닷길을 이어주는 소통의 징검다리가 아니었고, 점차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고립의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에 왜구는 조선의 섬을 근거 삼아 연안과 내륙에 대한 약탈을 일삼았다. 조선은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정벌에 나서기도 했지만, 쓰시마를 점령해 지배하는 대신 훈계하는 것에 만족하고 철수했다. 조선은 바다 저 밖에서 꿈틀거리던 외세의 동태에 어두웠다. 그리하여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에 대비하지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에 의해 일본 수군을 저지했다. 하지만 조선은 임진왜란 7년 전쟁을 가까스로 수습한 이후에도 해금을 포기하지 않았다. 공도(空島)가 계속 유효했다가 1세기가 지난 숙종 연간에 이르러서야 섬을 지키자는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제주도를 비롯한 주요 섬들에 수군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섬에 파견되어 들어가는 수군진 관원들과 함께 민간인들도 섬에 따라 들어가 살기 시작했다. 비로소 공도(空島)의 굴레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섬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고립된 공간이라는 인식은 강하게 잔존해 있음으로 인해 제주도 등 섬 주민에 대한 천시의 풍조가 만연했고, ‘섬놈’, ‘뱃놈’, ‘갯것’이라는 비어들이 난무했다(강봉룡, 2014). 또한 공도(空島)는 풀렸지만 해금은 여전히 유지되어 중

국 배를 ‘황당선(荒唐船)’이라 부르며 내항을 금지했고, 서양 배를 ‘이양선(異樣船)’이라 부르며 역시 배척했다. 결국 서양화의 길로 접어든 일본의 배 운요호가 강화도를 공격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굳건한 해금=쇄국의 정책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선은 이듬해에 강화도조약으로 부산, 인천, 원산에서 바다 문호를 강제 개방해야 했다. 임진왜란 때 살려냈던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 신해양의 시대와 섬

오늘날 섬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섬과 바다에 대한 천시 풍조는 점차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 아직도 강하게 잔존해 있다. ‘물가에 가지 말라’는 경구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바다를 위협시하여 난간으로 봉쇄해 바다에 접근 금지시키고 있다. 조선 500년 도서해양을 천시하고 위협시한 풍조가 역사의 관성이 되어 쉽게 멈추어 서지 않는 까닭이다(강봉룡, 2011b).

그럼에도 조선업 세계 1위, 해운업 5위, 수산업 10위의 지표가 말해주듯, 오늘날 우리의 해양 활동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섬과 바다에 대한 인식을 일대 전환시킬 당위성에 공감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도 상당한 진척이 있어서 해양경찰청,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50여개에 달하는 산하기관, 문화재청 산하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신해양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다는 세계와 소통하는 길이고, 섬은 그 바닷길의 징검다리이므로, 앞으로 관련 기관의 관심사는 바닷속 뿐 아니라 섬과 바다를 포괄하는 도서해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진척과 더불어 도서해양에 관한 연구 성과의 축적과 교육을 통한 사회적 확산을 병행 추진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해양의 시대’를 맞아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섬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역사성과 복수성

기본적으로 섬은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유배지(김난옥, 2004)로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학, 미술, 음악, 민속, 생활양식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문화가 독특한 역사성과 복수성을 지니게 된다. 이로 인해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은 특정 섬의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게 됨으로써 오늘날에는 외래 관광객을 위한 해양관광콘텐츠로서 활용되고 있다(나카무라야에, 2016). 이런 관점에서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이 해양관광콘텐츠로서 섬 관광산업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2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은 특정 국가 및 지역의 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충

분히 있다. 둘째,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은 그 특이한 구성 형태로 인해 일반적인 관광자원 분류에 따른 유형과 무형 또는 인문과 자연으로의 이분법적 구분이 무의미하다. 섬은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기후조건에 따라 입도(入島)와 출도(出島)가 정해지는 섬의 고립적인 상황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성과 영원성에 기반을 둔 복수성을 만들면서 섬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섬 관광을 위한 각종 해양관광정책 및 관광개발에서 마요르카 섬(스페인), 델로스 섬(그리스), 메로에 섬(수단), 라 고메라 섬, 크레타섬, 코르시카 섬(프랑스), 제주 섬 등은 차별적 가치, 특히 지형지질, 경관, 독특한 문화, 섬의 정체성이 뛰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여 보존해야할 가치가 매우 높은 '인류 보편적인 유산' 즉, 인류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의 중요성을 단순하게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만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섬 문화의 지속가능한 계승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이 지니고 있는 섬 문화의 본질과 의의, 그리고 현대적 계승발전의 중요성을 관광학의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3. 제주도의 역사성 고찰

1) 탐라는 고려 천하의 외국

제주도 유학자 김석익이 편찬한 『탐라기년』에 의하면, 백제가 멸망한 후 백제 좌평 벼슬을 갖고 있던 탐라국주 도동음률은 신라 문무왕에게 입조했고, 이후 탐라는 신라로부터 각각 성주와 왕자라는 봉작을 받아 이를 세습했다. 탐라 사람들의 말에 성주는 발님, 왕자는 남자인데 각각 국왕과 부왕(副王)의 성격을 지닌 존재였고 이중에서 성주는 언제나 고씨가 독점했다. 고려 건국 후 탐라국주 고자견은 태자 고말로를 고려 태조에게 보냈는데, 태조 왕건은 성주와 왕자의 봉작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서 세세로 고려에 입조하게 했다(노관범, 2017).

탐라는 고려라는 천하의 한 외국이었다(김보광, 2018). 일례로 고려 정종이 새로운 국왕으로 즉위하자 탐라는 사신을 보내 신왕의 즉위를 축하하고 즉위 기념 팔관회에도 참석했다. 고려 정종 때 탐라 사람 고유가 고려의 빈공과에 응시하여 급제한 일도 있었다. 고유는 고려 중앙정부에서 벼슬한 최초의 탐라인이었는데, 고유의 아들 고조기도 과거에 급제하여 고려 의종 때 문하시랑평장사까지 관직이 올랐으며 후일 《고려사》 열전에 입전되었다.

고려 중기 이후 탐라에는 군현이 설치되어 고려 관리가 파견되기도 했지만 고려 관리는 토적의 빈번한 저항에 직면했고 탐라의 지배력은 여전히 성주와 왕자에게 있었다. 고려 원종 때 탐라성주는 고려 관리와 협력해 섬 안의 토적의 반란을 진압하는 한편 고려 관리와 함께 몽골에 가서 공식적으로 입조했다. 조선 태종 때 성주 고봉례와 왕자 문충세를 마지막으로 성주와 왕자

의 봉작이 폐지된 후에야 탐라는 비로소 조선의 실질적인 지방이 되었다. 조선 태종은 제주도에 기존의 제주목 이외에 대정현과 정의현을 신설하고 각각의 수령을 중앙에서 파견하여 제주도 전역을 지배했다. 이후 제주도는 제주목사 지배 하의 세 고을 체제가 지속되었다.

2) 제주의 역사성을 더하는 고득종의 활약

조선의 국왕은 제주목사를 통해 제주도에 유교적인 왕정을 베풀려고 노력했다. 태종을 이은 세종은 계축년(1433) 제주도에 기근이 들자 최해산을 안무사 겸 목사로 보내 도민을 진휼하게 했고, 세종의 왕명을 받은 최해산은 제주도에 와서 유교적인 선정을 베풀었다. 그런데 최해산의 임기 중에 제주 관아에 화재가 나서 건물들이 소실되자 그는 새로 홍화각을 세웠다. 비록 이 화재로 인해 그간 제주도에 전해지던 오랜 역사 기록이 모두 불타버리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새로 건립된 제주 관아는 조선 정부의 역사적인 제주 통치를 상징하는 위엄 있는 건물이 되었다.

이 중요한 건물 홍화각의 기문을 지은 사람은 제주 출신 고득종이다. 그의 문집 『영곡유고』에 「홍화각기」가 실려 있어 저간의 사정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606칸 새 관아의 낙성식이 열린 날 관아의 이름을 정하려고 고을 어른들을 불렀는데, 고을 어른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생각해 ‘만경(萬景)’이라는 이름을 추천했으나 고을 사또 최해산은 조선 국왕의 유교적인 교화를 넓힌다는 뜻에서 ‘홍화(弘化)’로 결정했다(金東攄, 1993).

조선 세종 대에 세워진 홍화각은 이처럼 제주목사가 항상 제주도에 대한 유교적인 교화를 명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제주도는 제주, 대정, 정의의 세 고을 체제 하에서 각 고을마다 향교가 설립되어 유교 교육이 시행되었다. 물론 조선 전기 제주도에서 유교 교육의 성과는 아직 미미했다. 제주도 현지에서 본격적으로 별시가 시행되기 시작하는 인조 대 이전까지 과거 시험에 합격한 제주 출신 선비들은 극소수였다. 제주도 현지 교육 여건의 불리함도 작용했겠지만 육지에 건너가 응시해야 하는 수험 조건의 불편함도 작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홍화각의 기문을 지은 제주 출신 고득종이 세종 대에 중앙에서 이름을 드날린 것은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 고득종은 제주도 성주 출신으로 부친상을 당하자 삼년복을 입어 유교적인 예법을 실천했고, 한양에서 과거 급제한 후 좋은 제주 말을 들여와 도성의 권신들과 사귀며 중앙에서 제주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제주 출신 고관으로 세종 대에 제주도 관련 주요 정부 정책을 자문했고, 국왕의 신임을 받아 관압사(管押使)와 성절사(聖節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오고 통신사가 되어 일본 무로마치 막부에 다녀왔다. 고득종의 활약으로 그 지손들은 한양에서 ‘의관사족(衣冠士族)’으로 꼽히는 명문이 되었다(오창림, 2017). 이와 같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제주도가 조선의 군현으로 편제되는 시기에 조선의 중앙에서 활약한 제주인 고득종의 일생은 영화나 드라마로 충분히 되살릴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제주도에는 고득중 이후에도 많은 이야깃거리가 전해온다.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한 이야기(강준수·송영민, 2015), 만덕이 제주도민을 구출한 이야기(이창훈, 2011), 이재수가 민란을 일으킨 이야기(박찬식, 1999)는 특히 유명하다. 세종의 제주만큼이나 제주의 세종도 흥미로운 주제이다. 제주에서 바라보는 세종시대의 역사상이 한양에서 바라보는 세종시대의 역사상보다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김오진, 2008). 우리나라 수많은 섬 중 제주도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의 복수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훌륭한 소재가 될 것이다.

3) 신화와 전설의 섬

제주도에는 한라산에서부터 마을에 이르기까지 어디를 가나 '신화·전설의 섬'이라고 부를 만큼 풍부한 신화와 전설이 살아 숨 쉬면서 신비로움을 더해가는 신비의 섬으로 이러한 신화와 전설 속에는 제주만이 지닌 자연적 조건과 그 위에 흘러간 역사를 엮어온 제주인들의 꿈이 깃들어 있다(김가영, 2013; 성수현·우동우, 2015).

제주의 전설은 일반적으로 자연 전설, 역사 전설, 신앙 전설로 나뉘며, 자연 전설은 특이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역사 전설은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신앙 전설은 풍수지리, 속언 등 민간신앙에 관계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 자연 전설은 단지 그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바로 제주문화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는 의미로 발전하여 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주 자연의 유래를 설명하면서 동시에 제주 사람들의 삶의 역사와 그 양식을 말하고 있으며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설문대할망 전설> <삼성혈 신화> 등이 있다. 역사 전설에는 실제 인물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설들이 많으며 그것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향유자들의 상상력이 덧붙여져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제주 전설은 역사적 의미와 허구적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신앙 전설은 대부분 풍수에 관한 것이 많아 제주 사람들의 문화성과 그 삶의 역사성을 설명하고 있다(이창식, 2012; 정중현, 2015).

4) 제주어의 역사성

제주어의 역사성, 제주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면서 제주도의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문순덕, 2011a). 제주어는 언어학적 가치는 물론 제주 문화의 실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언어 자원이기 때문이다. 언어학자들과 문화인류학들은 제주어를 고어(古語)의 보고라 한다(문순덕, 2011b). 이는 중세국어의 모습이 지금까지 쓰이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주어 '마(장마), 잇다/이시다/싯다/시다(있다), 하다(多·많다), 꺾것(귀신), 우테(위에), (낮)' 등은 중세국어의 어형으로 지금도 쓰인다. 이 외에도 '남, 낭'은 표준어 '나무'에 해당하며, 중세국어 '나모'의 어형이 남아 있다. 즉, '나모'가 격조사와 결합하여 '남기'가 되고 이때

‘남’ 어형을 지금도 제주어 화자(話者)들이 사용하고 있다.

제주어 ‘굵기(구멍)’는 노인층에서 간혹 들을 수 있는 어휘로 지역에 따라 ‘굵기, 고냥, 구녕, 고망’ 등으로 쓰인다. 중세국어로는 ‘구무’이며, 여기에 격조사가 결합하면 ‘굵기’가 되는데 중세국어 ‘굵기’가 제주어에 살아있는 것이다. 제주어 ‘일름’과 ‘일흠’은 표준어 ‘이름’에 해당하며 이중 ‘일흠’은 중세국어 ‘일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현대국어 ‘이름’으로 변화하는 중간단계로 본다. 제주어 ‘감저/감제’는 중세국어 ‘감저(甘藷)’에 해당하며 표준어로는 고구마이다. 또한 중세국어 ‘담’는 ‘짐치’에서 김치로 변화했는데 지금도 제주어 화자들은 ‘짐치’를 사용한다.

제주어는 한국어의 하위 언어로 문법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다만 제주어는 15세기 언어 모습이 남아있어서 국어사적 가치가 크다. 제주어 어휘가 낯설다고 해서 외국어가 아니고 한국의 한 지역어에 속한다. 표준어와 비교해보면 어휘와 음운, 문법적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는 중세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다(문순덕, 2011b). 육지와 떨어진 섬이고 언어의 전이가 더디게 나타나 옛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지 뿌리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 제주어는 제주인의 정체성이다

언어의 소멸 이유는 다양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중(言衆)이 사용하지 않아서이다. 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줄어들거나 대체 언어가 있어서 굳이 해당 언어를 쓰지 않아도 학문적·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어의 소멸 위기도 여기에 해당한다. 표준어라는 대체 언어가 있어서 제주어 사용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제주어를 사용해야 할 절대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제주어는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시기가 언제인지, 사라진 후에 제주 지역과 제주인이 무엇을 상실하게 될지는 추측이 가능하다. 정신적 구심체인 언어의 소멸은 정신의 궤멸을 동반할 것이며 문화 자원의 상실도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소멸 시기를 멈추거나 더디게 하기, 소멸되기 전에 기록하기 등 보전 전략들을 해양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계해야 한다.

언어는 변하고 소멸되는 것으로서 자연의 이치이며 보전 또한 자연의 이치이나 제주어에는 제주인의 문화가 녹아 있으므로 정체성 찾기 측면에서라도 제주어를 보전할 가치가 있다. 한 예로 제주어를 사용하고 보전하는 방법은(여기서 보전이란 유형문화재처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로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전수하는 것을 말함) 제주어를 최대한 채록·정리하는 것이다. 보전이라 하면 화석화된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언어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띠므로 옛 모습 그대로 발음이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며 활용하면서 보전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2010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주어가 소멸위기 언어’로 등록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2011년 1월) 제주지역에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부응하여 제주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주어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칭을 개정하는 등 보전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즉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안’이 제정(2007년 9월)과 개정(2011년 4월)을 거치고 ‘제주어육성위원회’를 재구성하였다. 조례안에는 매년 10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일주일간(탐라문화제 기간)을 ‘제주어 주간’으로 지정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

(2)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

제주 문화의 총체인 제주어는 살아있는 언어이다. 제주어는 생활어지만 사용 인구와 사용 빈도가 감소함에 따라 보전정책이 필요하므로 앞으로는 대중화로 전환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언어학자들의 학문적 접근과 구술자료집 발간이 있었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는 정도였다(문성숙, 2002). 물론 대회 횟수와 참가자의 수에 비례해서 제주어의 활용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이는 활용의 한 측면일 뿐이다.

언어의 소멸은 언어의 역사성으로 보면 당연하지만 제주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어휘의 소멸은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 유지와 관계가 있다. 제주어가 사라지면 우리의 역사도 사라지며 과거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도 잃게 될 것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정도에 비해 제주어는 알아듣기 힘든 언어로 여긴다. 제주 지역 사람들끼리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낮은 언어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다른 지방의 언어에 비해 제주어를 실제로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 사람들이 제주어를 사용하려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없으면 어떠한 제도나 방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더구나 제주 사람들은 외지인을 만났을 때 표준어를 구사하려는 의식이 강해서 제주어의 노출에 소극적인 편이다. 이런 점이 제주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제주어 ‘곶자왓, 불턱, 올레’는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했다고 본다. 또한 제주의 문화를 잘 드러내는 어휘에는 ‘삼승할망(삼신할머니), 자청비, 감은장아기, 설문대할망, 국(모자반국), 빙떡, 정낭, 너(해너), 켄당(친척)’ 등이 있다. 이렇게 제주 문화에 녹아있는 문화어를 제주어에 접목시켰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3) 제주관광문화의 근간은 언어이다

제주도는 풍광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고, 제주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자연환경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문화의 근간은 언어이며, 그 언어에는 사회상과 역사가 내포되어 있어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방언에는 지역민의 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관광문화의 핵심 해양관광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제주방언의 보전과 활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전은 활용을 전제로 한다. 제주도에는 해양관광콘텐츠 자료가 풍부하며 이를 발굴해서 활용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주 해양관광콘텐츠의 중심에 있는 제주어에 대한 기준에 구축된 자료

를 활용해야 한다. 관광지 훼손은 눈앞의 손익을 계산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흥망성쇠가 공존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정책은 이를 초월하는 영역으로서 제주어 보전은 담화공동체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문순덕, 2017).

4. 제주도의 복수성 고찰

1) '소라의 성' 건축가 김중업과 박정희

'소라의 성'은 제주 남쪽의 해안 절벽 위에 '달팽이 껍데기'처럼 도사린 2층집이다. 애초 무슨 용도로 지어졌는지에 대해선 이설이 경합한다. 대통령 박정희의 경호원 숙소로 지어졌다는 설이 그 하나다. 실제 1969년에 건축된 이 건물은 지금의 파라다이스호텔 자리에 있던 박정희 별장과와 지척이다. 그 시절 제주에서 이만큼 공들여 건물을 지었다면 뭔가 비범한 쓰임새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론도 경호원 숙소설에 무게를 더한 듯하다. 박정희는 제주를 가장 빈번하게 방문한 통치자였다. 그가 제주를 처음 찾은 것은 쿠데타가 성공하고 3개월이 채 안 된 1961년 9월 12일이다. 그로부터 소라의 성이 완공된 1969년까지 그의 내도(來島) 횡수는 10차례에 달했다(현학순, 1969). 하지만 경호원 숙소설은 확인되지 않은 풍문에 가깝다. 현지에서 발급받은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관광전망대'로 나오기 때문이다. 대장에는 2차례의 소유권 변동 사실이 적혀 있다. 1991년 2월 서귀포 주민 김00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2008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됐다(최초 소유자는 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음식과 음료를 파는 전망대로 세워졌을 것이다. 경호원 숙소였다면 굳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절벽 위에 지었을 리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관계자들의 지적도 참고할만하다(이세영, 2014).

한편, 소라의 성 건축가가 박정희와 불화했던 김중업이란 사실 역시 경호원 숙소설을 배척한다. 김중업은 5·16 직후 육사 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데모를 비판한 일로 곤욕을 치렀고, 유신 직전인 1971년엔 신문 기고문에서 판자촌 빈민들의 광주대단지(지금의 경기도 성남) 이주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주민 폭동 직후 정보 당국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강제 외유를 떠난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남다른 김중업의 제주 사랑은 1962년 6월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제 1차 세계국립공원대회(미국 시애틀)에서 제주를 한국의 대표적 자연경관으로 소개한 것에서 나타난다(국토환경정보센터, 2018). 당시 <경향신문>은 "열대·아열대·온대·한대 등 4지대의 기후를 겸하고 있는 제주도는 세계 어느 지방에서도 볼 수 없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는 김중업의 발언과 함께 그가 "제주 지방의 특수지층으로 이루어진 폭포며 지하수의 분출 등도 낱알이 설명했다"고 전한다.

김중업은 이 건물을 짓기 전 제주에 이미 몇 개의 주목할 만한 작품을 남겼다. 그중 하나가

주한 프랑스대사관, 서산부인과의원과 함께 김종업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제주대 본관(1964년)이다. 곡선과 원의 미학으로 빛어낸 이 콘크리트 조형물은 프랑스 비평가 미셸 라공으로부터 “21세기를 연출했다”는 찬사를 받을 만큼 미래의 건축 경향을 선취했으나 부실시공과 관리 소홀, 해풍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식과 파괴를 견디지 못하고 1996년 5월 철거됐다. 김종업은 이 밖에도 제주대 수산학과와 농학부, 중앙여중, 서귀포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제주에 남겼는데, 현존하는 것은 이곳 소라의 성이 유일하다. 김종업 건축의 황금기에 지어진 건물답게 <사진 1>의 소라의 성에는 1960년대 후반 그가 구사했던 특유의 문법과 어휘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건물 서쪽에 벽돌로 쌓아 붙인 원통 기둥은 김종업이 건축가의 전범으로 삼았던 르코르뷔지에의 룡상 성당 수직탑을 떠올리게 하지만, 전반적 형태는 제주의 전통 돌탑(방사탑)에 가깝다. 직선이 아닌 원호와 곡면을 주로 사용한 평면 구성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서울 신당동 서산부인과의원과도 유사한데, 왜소한 사각창을 불규칙하게 배열한 서산부인과의원과 달리 바다와 면한 2층 외벽을 시원스러운 수평창으로 처리한 것이 눈길을 끈다. 수평창을 두른 2층의 돌출 부위는 중유석을 닮은 4개의 기둥으로 지탱된다. 서산부인과의원의 발코니 기둥과 같은 형식인데, 표면에 조약돌을 촘촘히 박아넣어 오돌토돌한 해양갑각류의 껍데기 부위를 연상시킨다. 외벽은 ‘제주석’이라 불리는 거친 현무암을 다듬어 쌓아 제주의 지역성을 구현했다(강윤식·이동언, 2003).



자료 : 이세영, 2014, “순치된 스펙터클을 욕망하다 : 거장 김종업이 제주에 남긴 ‘소라의 성’, 육지력은 섬을 어떻게 점유하고 소비하는가”, 『한겨레21』, 제1006호, 한겨레신문 : 2014.4.9.

(사진 1) 김종업의 건축 철학을 반영한 원통과 곡면의 미학이 지배하는 제주 ‘소라의 성’

내부 공간 역시 바닥을 제외하고 직면을 좀체 찾아볼 수 없다. 원형이 훼손됐다고는 하나, 원의 형태로 구획된 작은 방과 음표 꼬리처럼 물결치는 격벽들은 “집은 노래 불러야 한다”는 김종

업의 건축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투박한 제주석으로 쌓은 계단실 역시 완만한 나선을 그리며 2층을 거쳐 옥상으로 이어지는데, 밝고 트인 외부 공간에서 좁고 어두운 내부로 진입할 때면 마치 단단한 소라고동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김중업은 일본의 한 건축잡지와 인터뷰하면서 1970년대 말 자신이 설계한 서울 한남동 주택을 ‘달팽이집’이라 소개한 적 있다. 그에게 달팽이 껍데기는 내부의 연체를 보호하는 작은 집의 다른 표현이었다. 부산 피란 시절 김중업은 친구인 시인 조병화를 위해 집을 설계한 뒤 ‘패각의 집’이란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이때의 패각이란 작고 따뜻하면서도 견고한 인간적 규모의 거처를 의미했다.



자료 : 이세영, 2014, “순치된 스펙터클을 욕망하다 : 거장 김중업이 제주에 남긴 ‘소라의 성’, 육지 권력은 섬을 어떻게 전유하고 소비하는가”, 『한겨레21』, 제1006호, 한겨레신문 : 2014.4.9.

〈사진 2〉 ‘소라의 성’의 내·외부 모습

소라의 성이 지닌 독특함은 <사진 2>와 같이 2층의 수평창을 통해 패각의 닫힌 이미지를 교묘하게 전복시킨다는 점이다. 현대건축에서 수평창은 경관에 대한 인간의 소유욕을 극단적으로 충족시키는 장치다. 창을 통해 이뤄지는 자연경관의 포획은 외부를 부단히 내부화·식민화하려는 근대적 욕망과 맞닿아 있는데, 이 점은 무엇보다 수평창 자체가 근대의 산물이란 사실과 결부된다. 그것은 건축물의 외벽이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노역에서 해방됨으로써 비로소 등장했다. 기둥과 보만으로 구조물을 지탱하는 철근콘크리트 공법이 보편화된 덕이었다. 소라의 성 2층의 창문 앞에 서면 남방해역의 망망대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창이란 프레임을 통해 외부는 ‘내부에 포획된 외부’로 재탄생한다. 이때 외부는 위협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그대로의 자연이 아닌, 프레임에 갇힌 ‘순치된 스펙터클’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이 건물에 투사된 당대의 무의식은 이윤

의 새로운 원천을 찾아 부단히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자본의 욕망, 힘의 공백 지대를 향해 팽창을 거듭하는 권력의 정념과도 유사하다.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제주는 근대에 상상된 전형적인 섬의 이미지 그대로였다. 근대가 바라본 섬은 모든 전통과 가치로부터 단절된 곳이자 자연 상태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공간, 따라서 개화한 육지인의 합리적 의지에 따라 질서 지워지고 건설되어야 할 고립된 미개척지였다. 영국 근대소설의 기원이 되는 <로빈슨 크루소>에서 섬이란 공간이 문명인의 모든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처녀지, 근대적 주체의 의도와 계획을 마음껏 투사할 수 있는 백지의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이 전형적인 예다. 제주 역시 일찍부터 받는 것 없이 주는 땅이었다. 역사에 편입된 초창기부터 그랬다. 백제·신라·고려·조선으로 왕조는 바뀌었지만 왕실로 진상되는 공물 생산지의 역할엔 변함이 없었다. 섬이 '중앙'으로부터 받는 것은 유배 맞은 정치범들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사실상의 '내부 식민지'였다. 이는 근대의 문턱을 넘어선 뒤에도 제주 섬의 운명에 변함이 없었다. 육지 권력은 끊임없이 손만 벌렸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수탈자의 대열에 민간 자본이 가세했다는 정도다. 식민지 시대부터 조짐이 엿보였는데, 1937년 <동아일보>는 '제주 총회관'이란 특집물을 연재하면서 보성전문학교 교수 최용달이 쓴 이 글에서 제주의 현실을 기후와 자연, 풍속, 사회조직 등 10개 소주제로 나눠 살폈다. 글에 드러난 제주라는 공간은 "자연적 조건과 인정풍속(人情風俗)이 일본과 몽고의 그것을 합해놓은 것 가튼 (...) 대륙과 섬나라의 인상을 겸해서 가진 남명(南冥)의 고도"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아주 너무나 원시적이고 비문화적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순박하나마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만일 그들의 생활이 저러트시 순박하고 순진한 채로 그러나 현대 과학으로 조성될 수 있는 유족하고 윤택한 문화적 생활으로 향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의 제주가 아닌 이상향으로서의 제주이리라."

신문이 제주 기획을 연재한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었다. 1937년 2월 조선총독부가 제주 개발 계획을 세운 뒤 실지 조사를 벌이고 예산안까지 편성하면서 제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던 것이다. 총독부의 구상은 섬에 항만과 도로를 놓고, 목축·어업·농업·발전(發電) 기지로 육성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주는 미개한 절해(絶海)의 정치범 유배지에서 일약 "조선 남단의 보고(寶庫)"로 떠오른다. 그러나 총독부의 제주 개발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륙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조선 전체가 전시체제로 전환된 탓이었다. 이후 개발 논의가 재개된 것은 1963년 '제주도건설연구위원회'가 설치되면서부터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의 지시였다. 이즈음 <경향신문>엔 '밖으로 손짓하는 탐라의 꿈'이라는 특집 기사(1964년 7월13일)가 실린다. 기사 전체가 '자원', '영토', '이방지대', '처녀지', '낙원' 같은 식민주의 용어로 점철돼 있다.

"무한한 자원을 간직한 바다가 있고 광활한 영토가 있다. 아름다운 신화와 전설이 가는 곳마다 아로새겨져 있다. 계엄령이나 산아제한 같은 굴레는 아예 생각조차 못해보는 이방지대. 여기

제주의 섬에는 누천년의 고요가 가시고 개발에의 고동이 용솨음친다. (...) 삼다의 섬 제주는 이제 못사람을 오히려 무색하게 할 만한 응도를 품에 안은 채 밖으로 손짓하고 있다. ‘오라! 그리고 이 처녀지에 낙원을 건설하라!’”

한편, 제주도의 실질적 개발은 1970년 ‘제주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1973년 중문 관광단지와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도 특정 지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화됐다. 공항과 항만이 확장되고 도로와 통신시설도 확충됐다. 1980년대 들어서는 국민 관광을 기반으로 국제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3개 관광단지와 14개 관광지구가 지정됐다. 가치분소득이 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외지인의 섬 방문과 현지 지출도 크게 늘었다. 문제는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이윤이 외부 투자자들 손에 독점되고, 관광 주도의 개발로 인해 산업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외지 투자자의 경제활동에 종속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는 점이다. 개발이익을 노린 외지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과 투기 행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고, 이는 관광식민화의 전형적 수순이자 사례가 되었다(이상철, 1995).

소라의 성은 그사이, 전망대에서 레스토랑, 해산물 식당으로 쓰임새가 바뀌어오다 2009년 제주올레 사무국이 입주해 1층은 올레 안내관, 2층은 사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2003년 건물(연면적 234m²)을 포함한 주변 1만3985m²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뒤 철거론에 휘말려 한동안 빈집으로 방치되기도 했다. 전망대에서 식당, 도보여행 사무국으로 용도를 갈음해온 이 건물의 생애사(生涯史)엔 섬이라는 ‘외부’를 전유해온 육지 권력의 욕망과 제주라는 이질적 공간을 소비해온 패튼의 변천사가 오토이 녹아 있다. 그것은 이국적 풍광 자체를 소박하게 조망하는 방식에서, 패키지로 먹고 즐기는 포드주의적 위락 관광을 거쳐, 다양화된 취향과 기호에 맞춘 유연화된 스펙터클 소비 형태로의 변화다(이세영, 2014). 건물 자체는 구조적 결함이 없지만, 해안 절벽 위에 지어져 지반이 취약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 제1회 제주비엔날레

2017년 9월 2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미술행사인 제1회 제주비엔날레가 개최됐다. 비엔날레는 ‘2년마다’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국제적인 현대미술 전시행사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됐는데,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주비엔날레는 투어리즘(관광)을 주제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원도심, 알뜨르 비행장, 서귀포시 원도심 등 제주도 내 곳곳에서 60명의 작가가 참여해 12월 3일까지 석 달 동안 열렸다. 제주의 현안인 투어리즘(관광)을 현대미술과 연계해 보여주기 위해 전체 프로그램 구성을 “전시, 투어, 배움” 세 섹션으로 구성했다. 다섯 권역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전 세계의 관광 현실, 과잉 관광(오버 투어)이 가져온 주민과 관광객 사이의 갈등문제를 살펴봐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주 관광의 현주소를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관세지광’(觀世之光, 제주

도립미술관), 제주의 생태적 특징을 중심에 둔 ‘에코투어’(제주현대미술관), 제주시 원도심(성내)에서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어반투어’(원도심·예술공간 이아), 4·3과 전쟁 등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을 조명하는 ‘관세지암’(觀世之暗), 화가 이중섭이라는 자원을 특화한 ‘등섭의 산책’(서귀포시 원도심·이중섭 거리 일대) 등으로 나누었다. 투어 부문은 제주비엔날레와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모바일 앱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투어’, 제주 전역 100곳에서 100일 동안 토크쇼, 파티 등을 여는 ‘탐라순담’, 제주도의 자연과 역사, 문화 콘텐츠를 예술과 연계하는 아트 올레가 진행됐다. 배움 부문에서는 청소년이 기획하는 비엔날레 프로젝트, 다양한 영역에서 관광을 다루는 강연 프로그램, 투어리즘을 주제로 한 학술 콘퍼런스(회의, 강연회) 등을 개최했다.

이와 같이 투어리즘을 행사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비엔날레가 엘리트주의가 매우 강한 예술 행사이기 때문에 대중들은 비엔날레를 자신의 삶과는 관계없는 예술 이야기로 여긴다. 예술은 사회 안에서 존재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제주비엔날레의 주제 선정으로 ‘제주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라고 판단된 투어리즘이 정해졌다. 제주도를 지탱하는 것은 관광객이지만 교통난과 쓰레기 문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자본 등 외부 영향으로 원주민이 쫓겨나는 사회현상)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도 크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일고 있는 주민들의 관광 반대 시위를 고려해야 하는 제주도의 실상을 반영한 것이다.

제1회 제주비엔날레의 투어리즘이란 주제는 안에서 보는 제주와 밖에서 보는 제주를 모두 잘 나타낸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대미술에는 이미 투어리즘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소재·주제·방법론으로 다루기도 하는데, 관광이란 무엇인가를 반성하며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좋은 주제가 된 것이다. 비엔날레에서 추천할 만한 대표적 전시나 프로그램은 작가 60명이 한라산 그림 60점으로 제주도의 랜드마크 한라산을 들여다보는 살롱전이 있다. 또한 유고의 아브라모비치 등 24명의 국외 작가가 참여하고, 유럽 도시들의 랜드마크가 전시된 사진전이 있다. 공장지대가 예술촌으로 바뀐 중국 베이징 798 다산쓰 거리의 초대 총장 황투이가 투어리스트피케이션(관광+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작품으로 만들어 출품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바다 쓰레기로 설치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지리산 둘레길에 버려진 펼침막도 전시했다. 제주 원도심과 일본군 비행장이 있던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은 다크 투어리즘과 관련된 사회·역사성 있는 전시로 거듭났다. 예를 들면 알뜨르 비행장 어귀에 미군기지 반대운동으로 알려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마을을 지키던 설치작가 최평곤의 작품 ‘대나무 인간’을 배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제주도 전체가 거대한 ‘군함도’였다고 할 정도로 당시 4만명의 제주도민이 인진 동굴 파기, 격납고 건설 등 기지화 작업에 동원됐다. 강제 노동의 아픔을 삼으로 표현한 작품과 함께 알뜨르 비행장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를 열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제주시 원도심은 지역재생 개념의 커뮤니티 아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중섭 거리로 널리 알려진 서귀포시 원도심은 이중섭 콘텐츠를 심분 활용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로 진행했다(김준기, 2017).

Ⅲ.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해양관광콘텐츠화 방안

1.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으로 수렴되는 해양관광콘텐츠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반영한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은 제주 해양문화 콘텐츠 원형 찾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사람, 물자, 문화 교류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문화원형, 초국가적 영역성을 보여 주는 문화원형, 문화적 잡종성을 보여주는 문화원형 등 해항도시¹⁾ 제주의 문화원형에 상상력이 창조적으로 가미될 때 해항도시 제주의 특색을 살린 제주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추진할 제주 재개발 등과 같은 핵심과제도 해항도시 제주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때 다양한 제주 해양관광콘텐츠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도의 다양한 지역에 국제교류의 공간이었던 장소를 복원하는 것은 나가사키의 테지마나 북유럽 여러 도시들에서의 한자상관 못지않게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살리면서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가진 사람·상품·문화의 교류성은 개방성과 초국가적인 영역성과 연결된다. 특히 제주도의 초국가적인 영역성은 21세기 새로운 지역 형성의 비전을 발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그 이유는 제주도가 바다를 통한 해항도시들간의 네트워크이고, 육지와 연결하는 ‘섬’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지역 형성과 창조의 근거지라는 것을 복원·창조할 문화원형이 많기 때문이다. 바다와 육지를 향해 열려 있었던 제주도는 외세와 맞섰던 경험과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한 시·공간의 문화는 제주도의 랜드마크(landmark)로서 훌륭한 해양관광콘텐츠가 될 것이다.

2. 제주도민이 참여하고 관광객과 소통하는 해양축제를 통해 제주도의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반영한 해양관광콘텐츠가 풍족해지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제주이호테우축제는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 고취에 어느 정도 기여하며, 제주도민들의 정주의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관광객의 방문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관점에서 해항도시 제주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반영한 모범적인 해양축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해양축제의 날짜와 시기에 대한 검토이다. 축제 시기는 태양력 또는 태음력에 의해 고정된 경우가 많지만, 매년 그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해양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문화·종교뿐만 아니라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반영하여 축제일이 정해진다. 특히 해양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문화·종교뿐만 아니라 계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받아 정해진다. 둘째, 해양축제가 궁극적

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역사성과 복수성의 공간적·시간적 집중성에 대한 검토이다. 해양축제가 열리는 곳은 ‘열린 공간’으로서 인적·물적·지적 소통의 흔적을 담고 있다. 항구와 같은 열린 공간에는 ‘고향’을 달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기능과 이들을 다시 ‘고향’으로 밀어내는 기능이 병존한다. 해항도시는 사람·사상·물자를 집결시키고 동시에 확산시키는 네트워크의 결절점이었다. 해항도시 고유의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와 융합하거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전이되는 형태를 취한다. 그래서 해양축제의 원형적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경우는 소수이며 오히려 새로 싹튼 문화형식과 융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양축제의 시기가 종교축일, 계절, 역사적 사건과 민속이 융해되어 정해지듯이, 해항도시를 대변하는 축제의 역사성과 복수성도 시간적·공간적 변용을 보여준다. 셋째, 해항도시의 정체성에 근거한 다양한 해양의식의 고취와 주민참여에 대한 검토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축제는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전통적 축제가 현대적으로 부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해양축제도 마찬가지로 해항도시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발굴하여 제주도 정체성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편이 되고 있다. 모범적인 해양축제들은 시민의 참여와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양의식을 찬양하고 고무한다. 즉, 프로그램의 독특성과 고급화,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핵심이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해항도시 제주도의 교류의 역사성, 국제성, 그리고 문화적 집중성을 근간으로 하며, 시간적 공간적 집중성을 반영해야 한다. 해항도시 제주도의 역사성, 복수성에 따른 정체성 확보, 미래비전을 관광객과 공유하면서,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해양문화를 답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강좌, 선상 투어, 제주의 각 항구 버스 투어와 같은 프로그램의 심화와 관광객과 제주도민들이 만들어 가는 음악회, 전시회 같은 프로그램에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IV. 결 론

해양관광콘텐츠란 본래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관광상품을 의미한다. 그래서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제주도의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비디오물, 게임물, 멀티미디어콘텐츠, 캐릭터, 만화 및 디지털콘텐츠 등 각 분야의 시설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문화산업의 해외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상상력을 총체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해양문화 콘텐츠 원형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가미되면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정체성과 공적 이미지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관광콘텐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으로 수립되는 해양관광콘텐츠는 제주도의 해양문화콘텐츠 원형 발굴에서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문헌고찰을 통해 세 가지 범주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 문화, 물자 교류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보여주는 문화원형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제성을 보여 주는 문화원형을 발굴하여 초국가적 영역성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다층적인 문화가 누적된 문화원형 발굴을 통해 한국현대사의 질곡의 현상이 가득한 사·공간을 개발해야 한다.

제주도를 해항도시로 자리매김 한다면, 해항도시가 가진 역사적, 철학적 비전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역동성을 담으며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에 어울릴 것이다. 또한 ‘21세기 해양의 시대의 해양전진기지, 제주’보다는 ‘21세기 유라시아 해항도시 네트워크의 결절점, 제주’가 역사성과 복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해항도시 제주가 가진 교류의 역사성, 복수성, 국제성, 문화의 잡종성을 드러내는 문화콘텐츠 원형은 여기에 상상력이 가미될 때 생명력을 가지며 나아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관광콘텐츠가 될 것이다.

제주도는 환해성, 격절성, 협소성을 갖는 한계지역(marginal area)이지만 생태, 문화, 해양의 자원 측면에서 높은 잠재력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도서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다양한 도서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국토계획에도 ‘매력적인 국토개발’ 측면에서 바다와 섬을 주목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제정된 후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섬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양관광, 해양산업, 미래식량자원, 생물종다양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바다와 섬과 갯벌에 대한 관심이 크게 향상되었다. 도서와 해양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서종합계획, 특정도서, 국토끝섬, 가고 싶은 섬, 명품 섬, 에너지 자립 섬 등 다양한 섬 개발을 위한 도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우선 제주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이는 자녀를 ‘섬놈’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전통적인 바다 배척 인식 때문이다. 섬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느낀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아들인 소외의 결과이다. 반면에 섬과 어촌 그리고 독특한 문화를 찾아 섬여행을 하는 관광객은 늘어가고 있다. 국가가 제주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각종 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제주 사람이 없는 섬 정책’인 경우가 많았다. 제주 섬의 정체성(islands community)을 훼손하는 제주개발계획은 육지의 관광지 개발계획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제주지역에 기반하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섬 만들기’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제주도민의 삶의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생태적 지속성 등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가 제안한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으로 수립되는 해양관광콘텐츠, 제주도민이 참여하고 관광객과 소통하는 해양축제를 통해 제주도의 해양관광콘텐츠 발굴이 중요하다. 향후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해양관광콘텐츠 개발방안은 반드시 정치적 요구

에 따라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섬 성(性)을 무시한 정책개발들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제주섬 정책은 국토종합계획과 다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 간 경계도 없고 국가 간 물리적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해양과 바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민들과 해양문화콘텐츠의 원형복원을 고려한 육지와 차별화된 해양관광콘텐츠 프로그램,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미래가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된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해야 한다. 제주 섬이 지니고 있는 섬과 바다의 무한한 역사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시기이다.

주

- 1)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해항도시(海港都市)의 의미는 정치·경제적으로는 자율과 분권, 자치와 상생의 가치가 내재하는 공공적 공간이다. 사회·문화적으로 현대 해항도시는 국가를 초월한 교류와 질서의 확대 속에서 사람과 문화의 접촉과 공유가 이루어지는 다원적 공간이다(우양호, 2016). 해항도시는 분명 육지도시와는 다른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내재된 상리공생의 경험과 보편적 가치관을 확인하고 그것을 오늘의 현장으로 생환하는 것이 본 연구가 해항도시 제주도를 명명하는 의도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현대 해항도시를 구성하는 주체의 측면에서 제주도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해양관광콘텐츠 개발에 대해 검토하였고, 구조의 측면에서는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공존과 혁신이 가능한 프로그램과 관광콘텐츠, 시간과 공간의 생성과 나아갈 방향을 설명한다. 해항도시(海港都市)는 기존의 국가중심적, 육지중심적 도시이론에는 분명 없던 용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일반화와 보편성을 추구하는 관광학의 본질 차원에서 기존에 없던 관광현상에 대한 올바른 처방전을 만드는 것 또한 학자의 무거운 책임으로 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날 해항도시 제주가 가진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하여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했다.

참 고 문 헌

1. 강봉룡, 2011a, “섬 그 역사를 되짚어 오늘을 본다”, 『문화재청』 : 2011.6.14. <http://blog.daum.net/gold2287/12884565> 에서 2018년 1월 27일에 인출.
2. 강봉룡, 2011b, “바다와 섬에 대한 인식의 역사적 변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독도 전시회"연계 <독도포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학술대회 : 1-22.
3. 강봉룡, 2014, “섬의 인문학'담론”, 『도서문화』, 제44집,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7-35.
4. 강윤식·이동연, 2003, “르 꼬르뷔제와의 영향관계를 통한 김종업 건축의 '대조비평' 시론”,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23(1), 대한건축학회 : 437-440.
5. 강준수·송영민, 2015, “해양문학의 관광스토리텔링: 하멜 표류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12), 한국관광연구학회 : 145-154.
6. 강철희, 2017, “3000개가 넘는 가능성!...섬은 한국 미래의 희망”, 『한국경제』 : 2017.9.4.
7. 경향신문, 1964, “밖으로 손짓하는 탐라의 꿈”, 『경향신문』 : 1964.7.13.
8. 곽수경, 2016, “섬을 보는 두 가지 시선과 장르 활용의 효과-영화 <맘마미아>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씨네포럼』, 제23호, 동국대학교 영상미디어센터 : 221-245.

9. 국토환경정보센터, 2018,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역사”, 『국토환경테마정보』, 자연공원, 국립공원 : <http://www.neins.go.kr/etr/ecology/doc03b.asp>.
10. 김가영, 2013, “제주 신화와 전설-제주 설화 ‘얼녀, 부씨의 아내’”, 『수필시대』, 제8권 5,6월호(통권 제50호), 문예운동사 : 137-139.
11. 김난옥, 2004, “[역비논단] 고려시대 유배길”, 『역사비평』, 가을호(통권 68호), 역사비평사 : 199-216.
12. 金東柱, 1993, “濟州牧의 官衙施設”, 『古文化』, 第42·43合輯,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201-207.
13. 김보광, 2018, “고려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역사와 담론』, 85, 호서사학회 : 261-302.
14. 김선화백경진, 2010, “‘섬과 예술’의 융합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바다의 회복 : 일본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추진 사례”, 『국토』, 통권 349호 : 국토연구원 : 92-100.
15. 김성후·오성수, 2012, “도서자원의 문화관광산업화와 관광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5(3), 한국산업경제학회 : 2241-2259.
16. 김오진, 2008,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官民)의 대응 양상”, 『대한지리학회지』, 43(6), 대한지리학회 : 858-872.
17. 김준, 2006, “관광콘텐츠로서 어촌의 문화자원 연구”, 『도서문화』, 28,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347-378.
18. 김준, 2012,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의 성찰과 지속가능한 섬만들기 전략”, 『도서문화』, 40,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 427-456.
19. 김준기, 2017, “첫 제주비엔날레 주제는 투어리즘...섬의 현실 들여다볼 것”, 『한겨레』 : 2017.8.31.
20. 김향자, 2013, 『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274.
21. 김현선, 2006, “제주도 <조상신본풀이> 의 신화적 성격과 역사적 의의”, 『한국무속학』, 11, 한국무속학회 : 201-235.
22. 나카무라야에, 2016, “대마도의 지역정체성의 재구축 -조선통신사와 위인을 둘러싼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99(1), 한국일어일문학회 : 19-38.
23. 노관범, 2017, “[실학산책19] 세종대왕의 제주도”, 『서원글방』 : 2017.11.14.
24. 노영희, 2008,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대양이티엔씨 : 1-239.
25. 문성숙,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방언 보존 정책”, 『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 4(2),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 61-89.
26. 문순덕, 2011a, “지역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학의 연구 동향과 과제”,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1년 제주학회 제36차 전국학술대회 : 177-188.
27. 문순덕, 2011b, “제주 구비문학에 나타난 제주방언의 문법 연구”, 『영주어문』, 2권, 영주어문학회 : 173-192.
28. 문순덕, 2017, “제주어는 고어의 보고이자 제주 문화의 실체이다”, 『주간조선』, 2214, 조선뉴스프레스 : 2012.7.9.
29. 박찬식, 1999, “<이재수의 난> : 사실성과 상징성 사이의 표류”, 『역사비평』, 가을호(통권 48호), 역사비평사 : 373-385.

30. 박홍식·장은경, 2017, “TV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프로그램에 나타난 섬 관광의 기호학적 분석”, 『관광 연구』, 32(3), 대한관광경영학회 : 159-175.
31. 성수현·우동우, 2015, “제주신화역사공원 콘텐츠활성화 및 강화방안”, 『2015 글로벌문화콘텐츠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학술대회 : 175-184.
32. 양진건, 2011, “조선시대 제주도주민의 이문화이해(異文化理解)가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제주도주민의 표류기록(漂流記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3(3), 한국교육사학회 : 43-59.
33. 오창립, 2017, “조선 초기 고득중(1388~1452)의 시문과 서예 연구”, 『탐라문화』, 54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237-263.
34. 우양호, 2016, 『현대 해양도시의 이론과 실제-분권과 자치의 정치경제학』, 선인 : 1-608.
35. 윤지영·변철, 2014, “나오시마에서 나타난 해양지역 재생의 특성과 유기적 디자인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16, 한국전산업융합연구원 : 249-261.
36. 이상철, 1995, “제주도 개발정책과 도민 태도의 변화”, 『제주도연구』, 제12집, 제주학회 : 71-114.
37. 이세영, 2014, “순치된 스펙터클을 욕망하다 : 거장 김중업이 제주에 남긴 ‘소라의 성’, 육지 권력은 섬을 어떻게 전유하고 소비하는가”, 『한겨레21』, 제1006호, 한겨레신문 : 2014.4.9.
38. 이승록, 2016,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새로운 희망의 100년”, 『제주의 소리』 : 2016.8.1.
39. 이승환·김수근, 2004, “김수근과 김중업 건축의 지역성 구현에 관한 비교 연구”, 『건축역사연구』, 13(3), 한국건축역사학회 : 37-50.
40. 이창식, 2012, “설문대할망 설화의 신화적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온지논총』, 30, 온지학회 : 7-45.
41. 이창훈, 2011, “김만덕 스토리텔링의 양상과 과제”,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 193-230.
42. 임왕규, 2003, 『해양 레저 및 휴양시설 계획』,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23.
43. 정중현, 2015, “4·3과 제주도 로컬리티-현길언과 현기영의 4·3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8, 한국현대소설학회 : 35-71.
44. 허남춘, 2016, “제주 신화 속의 해양교류와 해양문화”, 『탐라문화』, 5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 7-41.
45. 현학순, 1969, 『박 대통령과 제주도』, 제주도 : 40.

(논문접수일 : 2018. 3. 9 / 수정일 : 1차-2018. 4. 14, 2차-2018. 4. 16/ 영문초록검수일 : 2018. 4. 23
/ 게재확정일 : 2018. 4. 24)